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광주일보가 올 한해 동안 연재한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소망과 한국인에 대한 바람을 들어봤다. 그들은 낯선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일자리를 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가장 큰 바람은 동등한 직원으로 봐달라는 것이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19 한국사회에 바란다

"함께 일하며 행복…피부·문화 달라도 동등하게 봐달라"

전문적인 일 해보고 싶어

유숙

(25·인도네시아·무안군 청계면)

고향 소식이 궁금할 때는 인터넷도 하고 고향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향수를 달래고 있다. 새해에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하고 일도 부지런히 배워서 단순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기술로 고향에 돌아가 공장을 차리는 게 꿈이다.

'역지사지' 경험 해달라

미누

(37·네팔·서울시 용산구)

한국사람들이 다문화를 많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외국인노동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사는 인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다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예산 등 각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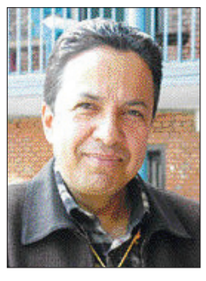
문화공간 더 많았으면

유누스

(27·인도네시아·무안군 청계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즐길 만한 문화가 많치 않은 것 같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부분이다. 새해에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고향에 돌아가 예쁜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가족과 함께 살 좋은 집도 사고 싶다.

악덕 인력송출 브로커 혼내달라



우쁘레디

(49·네팔 고용허가제 감독관)

네팔 젊은이들이 인력송출 브로커들에게 어렵게 모든 돈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한국과 네팔 정부가 막강한 조직과 자본력을 갖춘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올바른 인력송출 시스템이 뿌리를 내려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상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어 시험 관리 철저를

옴따망

(49·네팔 카트만두 한국어학원장)

"던여밧(고마워요)." 지난 1996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학원을 설립했다.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국어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한국어검정능력시험이 자리를 잡으면 실력없는 학원들은 문을 닫을 것이다. 네팔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임에 틀림없다.

일 할 기회 더 달라

라집

(23·방글라데시 다카)

올해 초 방글라데시에서 치러진 한국어검정능력시험에서 듣기와 읽기 문제를 모두 맞춰 '만점'을 기록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거둬도 한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계를 위해 한국행을 택한 만큼 새해에는 꼭 한국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만다라

(26·스리랑카·광주시 광산구 평동)

대부분의 회사직원들이 다들 잘 대해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끼'라는 말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크고 넓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싶다.

후진국 사람 취급 말라

가야

(30·스리랑카·광주시 광산구 평동)

일자리를 준 광주사람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후진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배우기만 하면 누구 못지 않게 할 수 있다. 쓰나미로 없어져 버린 집을 짓는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히 일해 인정받고 목표를 이루겠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었으면

론다

(32·필리핀·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지난 달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외국인인데다 한국말도 서툴러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든 잘할 자신이 있다.

의료혜택 확대됐으면

라이언

(29·필리핀·광주시 광산구)

한국에 들어온지 7년 만에 필리핀 상점을 열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필리핀 친구 등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한다. 간혹 큰 부상을 당한 친구들이 가게에 오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나 복지혜택이 나아진다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무사히 고국 돌아가길…

응옌 반홰

(25·베트남·경기도 화성)

지난 7월 재취업에 성공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사장님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들의 관심과 애정이 재입국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다. 동료들이 매일 식사나 잠자리 문제, 부모님 안부까지 챙겨줄 때 마다 힘이 솟는다. 한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노동자들도 모두 무사하게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의지할 사람은 고용주 뿐

알리

(30·인도네시아·자카르타 데폭)

한국에서 지난 1999년부터 5년간 일하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현재는 자카르타 인근인 데폭의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 입국을 앞둔 후배들은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은 높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